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7일 화요일 음 12월 8일 (조금)

한라칼럼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 낮 최고기온은 8-10℃로 예상된다. 풍량이 강하겠으며 산간도로 빙판길을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precipitation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a,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moon phase, and astronomical data.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눈 2/5℃
모레 흐리고 비/눈 2/6℃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이시바 “美에 우려 불식 요구할 것”

US스틸 인수 불허에 기자회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일본 산업계에서 미일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히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앞으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말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에 대해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형태로 실현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masthead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우리는 소멸하고 있는가?



문만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법학박사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에 2명대가 무너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은 노동 인구 감소·경제 성장 둔화·사회적 연대 약화를 초래하고,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연금 제도의 부담·노인 돌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사회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차

우리는 소멸하고 있는가?

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지방 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가입기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는 89곳에 이른다.

지역이 여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결국 소멸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처음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본에서는 최근 ‘지방 창생’이라는 긍정적 용어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을 막고 창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어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정

책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전통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포용하고, 양육과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 속에서 무상 보육 확대, 유연 근무제 강화,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층의 경험과 지식을 지역 사회와 경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지원,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년층은 단순히 돌봄과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자원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문화적 활력을 되찾는 ‘지역 재생’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소멸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이해와 연대를 강화해 공생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 면에서 지역과 지역 주민은 문제의 중심이자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인 지역 소멸의 위기를 사람 중심의 정책과 지역 중심의 해결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에 발붙이고 사는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리는 전략을 마련한다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소멸이나 창생이냐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린 문제이고, 소멸의 위기를 창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결국 그곳에 사는 우리에게 있다.

리바운드



강경림 제주특별자치도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다. 2012년 원주에서 펼쳐진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기대회에 출전한 농구부의 준우승 실화를 바탕으로 삼았다. 최약체 농구팀으로 결승까지 진출하는 대이변의 드라마가 따로 없었다. 경력이 전무한 코치와 무명의 여섯 선수들은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 출전해 결승 진출의 쾌거를 올린다.

이 영화는 끝났지만 리바운드(rim)이나 백보드에 맞고 튀어 오른 공을 다시 낚아채는 농구 기술인 ‘리바운드’를 영화의 타이틀로 삼은 만큼,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재

열린마당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이애순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두 달 전,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면사무소를 찾았다. “치매가 있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정부 지원을 문의했다.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을 살펴보니, 약재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이 떠올랐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며, 2인가구 기준 월 196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다.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해당 어르신 가구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남편의 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어르신 본인의 병원비도 일부 감면받게 됐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저소득, 저재산인 경우 거주지 읍면동 복지팀에 상담을 요청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Advertisement for 'Sirt' products, including a list of item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nra Jangmyo.

Advertisement for 'Gamsul' and 'Port' products, featuring product photo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inseong Jangmyo.

Advertisement for 'Gukje Boshinggi Parajja' (National Boshinggi Plaza), offering free consultation and a government subsidy of 131 million won.

Advertisement for 'Jeju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y Hanra Jangmyo, list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details.